17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2010 남아공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전 이란과의 경기 후반 박지성이 동점골을 넣은 후 동료들과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대표팀 선수들이 18일 오전 사우디아라비아와 0-0으로 비긴 후 월드컵 본선 진출이 확정되자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축구공이 만들어 낸 '한반도 경사'

■남·북 월드컵축구 본선 첫 동반진출 의미는

2022년 월드컵 유치 경쟁 한국에 호재로

분단국 동반진출 사상 두번째…새 이정표

한국과 북한이 월드컵 축구대회 출전 사상 처음으로 본선 동반 진출에 성공했다.

남북이 나란히 본선에 오른 것은 월드컵이 태동했던 지난 1930년 우루과이 대회 이후 무려 70년 만에 이룬 값진 성과다. 한 민족의 우수성을 축구를 통해 세계에 널리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금까지 분단국가가 단일 월드컵 본선에 동반 진출했던 것은 1974년 서독 대회 이후 36년 만이자 사상 두 번째다.

한국은 FIFA 랭킹이 46위이고 월드컵 본선 성적을 기준으로 통산랭킹이 30위(전체 성적 4승7무13패)지만 1986년 멕시코 대회 이후 세계에서는 여섯 번째로 7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쾌거를 이뤘다.

FIFA 랭킹이 106위에 불과한 북한(통산랭킹 55위·1승1무2패)은 1966년 대회 때 '축구 영웅' 박두익을 앞세워 이탈리아를 꺾고 8강에 오르는 '그라운드 기적'을 일으켰다. 이후 쇠락기를 맞으며 3년 전 독일 월드컵까지 40년 넘게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지 못했다.

하지만 아시아 맹주임을 확인한 한국과 세계무대에서 이방인으로 남아있던 북한은 약속이나 한 듯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사이 좋게 희망의 축포를 쏘아 올릴 기회를 잡았다.

남북이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에서 맞대결을 펼칠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실험 등으로 급격하게 냉각된 분위기를 다소나마 완충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았다는 점은 반가운 일이다.

이와 함께 2022년 월드컵 단독 유치에 나선 한국은 북한과 함께 본선에 동반 진출함으로써 유치 경쟁에서 북한을 일정 부분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카드'를 얻었다.

가장 뜨거운 국가 대항전 종목인 축구는 탁구와 함께 남북 화해 무드를 조성하는 '스포츠 가교' 역할을 해왔다. 일제 강점기였던 1929년부터 광복 이듬해인 1946년까지 서울과 평양을 오가는 '경평축구'는 온 국민의 뜨거운 관심이 쏠렸다.

1950년 한국 전쟁을 전후해 경평축구의 맥이 끊겼지만 1990년 10월 남북 통일축구대회로 부활했다.

남북은 1승1패로 장군멍군을 이루며 형제애를 다졌고 이는 1991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된 제6회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때 남북 단일팀 출전의 밑거름이 됐다. 남북은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8강에 오르며 단합된 힘을 과시했다.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최종예선 7차전에서 0-0으로 비겼고 끝내 이란과도 공방 끝에 1-1 무승부로 북한이 자력으로 본선에 오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줬다.

남북이 사이좋게 손잡고 나가는 남아공 월드컵에서 '코리아 형제'가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지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44년만의 감격…북한팀 눈물바다

18일(한국시간) 새벽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킹파드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북한과 사우디아라비아의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마지막 경기 B조 8차전.

후반 90분이 다 지나간 뒤 주어진 추가시간 5분마저 흘러 시계가 95분 5초를 가리킬 무렵 주심의 휘슬이 길게 울렸다.

북한이 사우디아라비아와 0-0으로 비기면서 B조 2위로 한국에 이어 44년 만의 월드컵 본선 진출 직행을 확정짓는 순간이었다. 동시에 역사적인 사상 첫 남북한 월드컵 본선 동반 진출의 역사가 확정되는 순간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휘슬 소리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라운드 위의 북한 선수들은 서로 부둥켜안았다. 벤치에서 90여 분 내내 마음을 졸이며 경기를 지켜보던 김정훈 감독은 코치진과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0-0 상황에서 경기 종료 5분여를 남기고 사우디아라비아의 파상 공세에 몇 차례 결정적인 실점 위기를 겪었고, 종료 1분을 남기고는 김영준이 거친 태클로 퇴장당하는 최대 고비를 맞기도 했지만 마지막까지 모든 선수가 집중력을 잃지 않은 결과였다.

특히 '인민 루니'로 불리며 본선 진출의 수훈갑으로 평가받는 정대세(가와사키)는 웃옷을 벗고 감격에 겨운 듯 연방 눈물을 흘리며 본선 진출의 기쁨을 만끽했다. 김정훈 감독도 정대세를 감싸고 그동안의 활약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어 선수들은 44년 만에 북한을 월드컵 본선으로 이끈 김정훈 감독을 헹가래치며 만세를 외쳤다. 그것도 모자라 선수들은 김 감독을 무동 태워 경기장을 돌기도 했다. /연합뉴스

국군체육부대 몸집 확 줄인다

2014년까지 25개→5개종목으로

국방부는 18일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국군체육부대(상무) 운용 종목을 2014년까지 현행 25개에서 5개로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야구·축구·농구·럭비·레슬링 등 25개 종목을 운용하고 있지만 비전투부대의 운용 효율화 차원에서 육상·수영·태권도·사격·바이애슬론 등 5개 종목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선수와 지원병력을 합해 600여명 수준인 운영인력도 150여명으로 줄어든다.

국방부는 1차로 2011~2012년 운용 종목과 인력을 각각 11개, 260여명으로 줄인 데 이어 2013~2014년에 5개 종목, 150여명으로 축소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체육부대를 국가 엘리트 선수 육성업무에서 기초체육과 군 특성에 부합하는 종목 위주로 운영해 국방체육 발전에 기여하고 비전투부대의 조직 슬림화를 통해 국방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축소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성폭력·폭력 지도자, 선수 영구 제명"

학교 엘리트체육 운영 개선방안

주말·공휴일·방학 때 대회 개최

폭력이나 성폭력 행위로 중징계를 받은 지도자와 선수는 학교 스포츠계에서 영구 제명된다.

또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각종 경기와 대회는 주말이나 공휴일, 방학기간 개최되며, 구기종목 체육특기자는 팀 성적과 개인 성적을 합산해 선발하게 된다.

국무총리실은 18일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엘리트체육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합숙 등 집단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코치와 선후배간 폭력 또는 성폭력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중징계를 받은 코치와 선수를 제명키로 하고,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학생선수들의 학력저하 문제에 대처키 위해 각종 경기를 주말과 공휴일, 방학기간에 열도록 하고, 일정한 학업성적에 미달하는 학생은 대회 참가에 불이익을 주는 '최저 학력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생활체육 청소년 3:3 길거리 농구대회

21일 학생교육문화회관

2009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 농구대회가 오는 21일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다.

광주시와 광주시생활체육협의회(회장 김창준·이하 생체협) 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3:3 길거리 농구로 전·후반 없이 15분 경기로 진행된다. 이 대회는 생활체육 활동 및 클럽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또한 댄스·농구·축구 등 3개 종목으로 매년 열리고 있는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는 오는 9월26일부터 이틀간 열릴 예정인 축구대회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김창준 회장은 "농구와 같이 팀플레이를 중요시하는 체육활동을 협동정신을 배울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다양한 생활체육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062-381-3322.

/서승원기자 swseo@

광주체고 김민정 銀

KBS 전국육상 400m 허들

'육상 기대주' 김민정(광주체육고 2년)이 제37회 KBS 전국육상경기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김민정은 18일 전북 익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대회 여고부 400m 허들에서 1분 04초 12를 기록, 김경화(경기체고 3년·1분 03초 73)에 간발의 차로 뒤져 아쉽게 2위에 그쳤다.

김민정은 지난 전국체육고대항전(5월)에서 2관왕(400m 허들과 1,600m 계주 금)을 차지했고 춘계중고육상경기(4월)에선 400m 허들 1위를 기록한 육상 유망주이다.

/서승원기자 swseo@

부동산경매의 성공투자는
한국경매 한국법률경매(주)
☎ 062) 225-1688
H.010-3565-2888
※ 위치 : 지산동 법원 버스정류장 앞 ※무료주차시설 완비

잠깐!! 경매입찰 대리업무는 공인중개사로서 법원매수신청 실무교육을 수료하고 법원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책임보험 1억원 가입업체) ※ 투자하실 분 및 재테크상담 대환영

아파트 (전세금액으로 내집마련)

지역	소재지	면적	층/층수	감정가	최저가
서구	금호동 중흥아파트	23	18/12	9300만	6500만
	풍암동 대주파크빌2차	46	17/8	1억8500만	1억2900만
	치평동 금호타운	33	17/1	1억2300만	8600만
	풍암동 세한센시빌	33	18/4	1억4500만	1억100만
	치평동 금호생옹	52	17/11	2억6000만	1억8200만
	화정동 화정주공	16	5/1	6300만	4400만
	치평동 라인대주	25	20/20	9300만	6500만
남구	진월동 현진헤미리	31	15/14	8400만	5880만
	백운동 사직스카이	32	15/9	9000만	6300만
	봉선동 라인	32	25/22	1억100만	7700만
	송하동 금호타운	31	20/1	9000만	6300만
	봉선동 라인아파트	32	25/22	1억1000만	7700만
	봉선동 솔리넥스케이원	62	20/19	2억8000만	1억9600만
동구	운림동 라인광명	31	18/1	1억1000만	7700만
	지산동 삼성아파트	32	15/11	9400만	6600만
	지산동 삼성아파트	46	15/2	1억5000만	1억500만
	운림동 라인1차	50	11/3	1억4500만	1억100만
북구	용봉동 대주파크빌2차	33	13/6	1억3500만	9400만
	운암동 롯데낙천대	33	14/5	1억7000만	1억1900만
	각화동 금호아파트	31	14/4	9000만	6300만
	운암동 미라보3차	33	20/14	9000만	6300만
	매곡동 삼익아파트	32	20/9	8200만	5700만
	우산동 현대아파트	43	15/15	1억2300만	8600만
	문흥동 현대아파트	47	18/3	1억9000만	1억3300만
	매곡동 삼익아파트	32	20/5	8000만	5600만
	동림동 삼익아파트	47	20/17	1억2500만	8750만
	우산동 현대아파트	43	15/3	1억2000만	8400만
광산구	운남동 주공4단지	26	20/8	6300만	4400만
	신창동 해광상그릴라	34	15/12	1억3500만	9400만
	월계동 첨단동부	34	15/14	1억2800만	8900만
	월계동 첨단금호	34	15/14	1억800만	7560만
	신창동 호반베르5차	34	24/12	1억6000만	1억1200만
	월계동 첨단동부	34	15/14	1억2800만	8960만
	장덕동 현성아파트	33	15/12	7000만	4900만

주택 (내집마련/전원주택)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비고
북구	오치동(오치동성당부근)	46/58	1억3000만	7200만	2층주택
	누문동 (북성파출소)	67/65	2억1200만	1억1900만	2층주택
	용봉동 (하이시네마 옆)	46/59	1억1400만	6400만	2층주택
	두암동 (두암초교부근)	38/51	1억	7000만	2층주택
남구	백운동 (백운초교부근)	43/40	8600만	4800만	2층주택
	월산동 (농성초부근)	44/44	1억	6800만	2층수리완료
	백운동 (수피아여중)	38/43	9600만	5380만	2층주택
	월산동 (삼아아파트부근)	34/37	7700만	4300만	2층주택
나주	성북동(성북동사무소)	52/92	3억1300만	2억1900만	3층(신축)
	남평읍 광이리	87/23	3600만	2000만	단층농기주택

상가주택/근린시설 (내집마련/상가임대)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비고
남구	주월동 (백운광장도로변)	124/294	11억3000만	7억9000만	4층병원건물
	월산동 (동신한방병원옆)	124/371	10억8500만	3억1000만	5층(목욕탕)
광산	월곡동(하이마트건너편)	145/313	9억1400만	5억1200만	4층상가주택
북구	오치동(오치사거리코너)	269/870	22억	11억2800만	7층학원상가

토지 (주말농장/전원주택부지/표자리/루자)

지역	소재지	용도	면적	감정가	최저가
북구	용봉동 (용봉마을입근)	논	907	6300만	4400만
광산구	도산동 (송정초교부근)	밭	4412	20억8600만	11억7000만
	두정동 (두릉마을)	임야	13860	4억5800만	2억500만
남구	승촌동 (승촌마을)	논	1195	9900만	6900만
곡성군	석곡면 유정리(유정마을)	논	669	2000만	1100만
장성군	진원면 용산리(용산마을)	논	807	8800만	6100만
	동화면 월산리(2차선도로)	논	749	6200만	3470만
영광군	법성면 대덕리(복룡동마을)	밭	2225	4400만	2470만
	홍농읍 가곡리	밭	1637	4000만	2200만

토지 (주말농장/전원주택부지/표자리/루자)

지역	소재지	용도	면적	감정가	최저가
나주시	봉황면 문곡리	과수원	3127	2억1700만	1억5000만
	세지면 송제리	밭	188	740만	500만
	세지면 문곡리(송정마을)	논	1210	4000만	2800만
	봉황면 문곡리(누실마을)	논	363	1200만	880만
	봉황면 문곡리(마음마을)	밭	3127	2억1700만	1억5200만
	대기동 (가룡마을)	과수원	1948	9650만	4300만
	봉황면 신동리(두음마을)	논	907	3600만	2500만
	봉황면 봉흥리(신정마을)	논	615	1750만	1200만
화순군	동복면 월정리	밭	1651	4260만	2380만
	한천면 정리 (정풍마을)	목장	1404	2억6200만	1억1700만
	도곡면 천암리(도곡온천)	대지	1359	6억7400만	3억7700만
담양군	남면 만월리	논	1166	3000만	2100만

숙박시설 (운영수익최상)

지역	소재지	면적	층수	감정가	최저가
동구	불로동 (그랜드호텔부근)	162/327	6층	12억2500만	6억8600만
서구	금호동 (서구문화센터부근)	101/343	6층	13억4000만	7억5000만
	화정동 (동양나이트부근)	100/435	7층	14억5000만	10억
북구	문흥동(농산물시장건너편)	410/871	8층	33억	14억7000만
	중흥동 (전남일보부근)	120/403	6층	13억	4억6500만

풍정시설

지역	소재지	면적	층	감정가	최저가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금성농공)	1532/277	2층	6억7800만	3억7900만
장성군	진원면 석전리(면소재지)	346/253	2층	7억4000만	4억1900만

[주]한국경매는 고객님의 재산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성탈모, 무모
이제 고민 끝!
여성전용 먹는 탈모제품의 특징
-몇일만 먹어도 머리가 빠지는게 멈추고
-머리가 굵어지며 풍성해지고
-새로나는 머리가 힘있게 올라오고
-피부 트러블이 완전히 사라지고
-배꼽아래 무모가 풍성해진다.

1개월내 효과 없을시 전액 환불!!
여성 탈모의 원인은 모낭의 영양결핍
남성 탈모의 원인은 모낭의 위축
원인을 알면 답은 간단합니다
이제 고민 끝내십시요!!!
상담전화 02)2677-0231-2/010-3518-8995
글로벌 농협569-12-034626(배의자)

강한 남자로 만드는 센-놈

사람의 몸은 쓰면 쓸수록 강해지며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퇴화됩니다.
이세상에는 저절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듯이 전과 같지 않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센놈이 있어 희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즉시 우뚝 솟으며 지속적이고 반영구적으로 간편하며 그녀가 선호하는 강한 사내로 변신 할 수 있는 신제품입니다.
상담전화 070-7786-8710/070-7786-9710
농협 569-12-034626(배의자)
서울 영등포 6가 11번지 영원 B/D 310호 글로벌테크